

## 2014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PAMS Choice 최종 선정 결과 공고

한국 예술가 및 예술단체 작품의 동시대적 경향과 예술적 완성도를 선보일 수 있는 우수 공연예술작품을 소개 하는 팸스초이스 (PAMS Choice) 공모가 6월 5일 (목)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94편이 접수되었으며, 장르별 심사 및 최종 통합 심사 후 최종 10편이 2014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1.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14년 6월 5일(목)~27일(금), 12:00 까지

나. 접수결과 : 총 94건 (연극 22건, 무용 34건, 음악 23건, 다원/기타 15건)

### 2. 선정개요

가. 선정절차

- 장르별 작품선정위원회, 해외자문단 모니터링, 최종 작품선정위원회로 나누어 진행

구분	일정	내용
장르별 작품선정위원회	7.10.(목)~11.(금)	- 접수된 전체 작품을 장르별 분류하여 심사 - 각 장르별 5작품 내외 총 18편 선정
해외자문단 모니터링	7.14.(월)~22.(화)	- 18편의 선정 작품에 대한 해외공연시장 교류, 진출 가능성 의견 취합
최종 작품선정위원회	7.22.(화)	- 작품 대상 장르통합 심사 - 우수 작품 10편 선정

나.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장르별 작품선정위원회	- 한국의 동시대적 경향 및 예술성, 예술적 완성도 등을 우선 순으로 심사
해외자문단	- 해외공연시장 경쟁력, 예술적 완성도 기준으로 자문의견 제시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최종 작품선정위원회	- 예술적 완성도, 한국의 동시대적 경향 및 예술성, 해외진출 전략 및 계획의 충실성 등을 우선 순으로 심사

다. 최종 선정결과

1) 총 10편의 작품 선정 (※ 단체명 가나다순 나열)

n.	단체명	작품명	비고
1	공연예술컨설팅그룹 '비온뒤'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음악
2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판소리햄릿프로젝트	연극
3	그라운드제로프로젝트	아가페	무용
4	극단 놀땅	본다	연극
5	드림플레이 테제21	알리바이 연대기	연극
6	블랙스트링	블랙스트링	음악
7	블루보이	한승석&정재일<바리 abandoned>	음악
8	시나브로 가슴에	휴식	무용
9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인간의 리듬	무용
10	이희문컴퍼니	이희문 오더메이드레퍼토리 '雜[잡]'	다원

2) 선정위원 (※ 가나다 순 정렬)

구분	장르	선정위원
장르별 작품선정 위원회	연극	서재형 (극단 죽도록 달린다 대표)
		이경미 (연극평론가)
		이양희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팀 팀장)
	무용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이지현 (무용평론가)
		장광열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음악	민정홍 (EBS 스페이스 공감 PD)
		송헌민 (월간 객석 기획실장, 음악평론가)
		원 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다원/기타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함영준 (커먼센터 디렉터)
		허명진 (평론가)
최종 작품선정 위원회	장르통합	구자흥 (명동예술극장 극장장)
		윤중강 (국악평론가)
		이지영 (중앙일보 문화부·공연담당 기자)
		조성주 (독립프로듀서)
		한선숙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3) 해외자문단

권역	이름	소속
아시아	옹켅센 (Ong Keng Sen)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북미	필립 비더 (Philip Bither)	워커 아트 센터, 공연예술분야 McGuire 극장 시니어 큐레이터
중남미	셀소 큐리 (Celso Curi)	OFF Produções Culturais 디렉터 오스왈드 문화원 디렉터

#### 4) 심사평

최종 선정된 10편은, 10년을 맞는 서울아트마켓의 공식 쇼케이스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장르의 균형적인 측면(연극, 무용, 음악, 다원/기타)을 고려하면서 선정했음을 밝힌다. 한국의 공연예술이 팸스초이스의 성장과 함께, 다변화하고 발전되었음은 분명하다. 심사에 있어서, '소재의 참신성'과 '작품의 완성도'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성과 현대라는 공간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금, 여기'의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나고 있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연극부문에는 높은 완성도로 관객과의 소통에 강점을 보인 작품과 신선한 감각과 독창적 시도로 해외 연극계가 주목할 만한 작품을 골랐다. 드림플레이 테제21의 <알리바이 연대기>, 극단 놀땅의 <본다> 그리고 국악뮤지컬집단 타루의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등 모두 3편이다. 이 중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는 전개와 연기의 밀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적어둔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한 차이로 뽑지 못한 나머지 작품들도 꾸준한 숙성과 정련을 거쳐 조만간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용부분의 경우 최종 선정된 3편은 그라운드제로 프로젝트 <아가페>, 엠비규어스 컴퍼니의 <인간의 리듬>, 시나브로 가슴에의 <휴식>으로,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다루고 있는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밀도 있는 접근과 안정적인 구성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정된 작품들이 장면 전개, 공간 및 기술의 사용, 움직임의 구성 등 표현의 면면에 있어서 다분히 관습적인 문법들이 지배적이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글로벌한 무대와 보다 다양한 관객들을 향해 다가가고자 하는 창작자들의 욕구에 비례하는 독창적 시각과 설득력이 이후의 기회와 환경을 통해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음악부분의 최종 3편은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한승석&정재일 '바리 abandoned'>는 소재와 접근방식에서 일단은 참신하며, 판소리가 갖고 있는 예술적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 <블랙스트링>은 세계 유일의 악기라고 할 거문고(허윤정 연주)를 비롯한 한국악기의 특성을 잘 부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해외경험이 있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작품이 탄생될 것이다.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는 그간 '바람꽃'을 통해서 활동했던 연주자의 개인 프로젝트이기에 관심이 간다. 참신한 연주와 세련된 감각을 드러내는 연주자의 개성과 더불어, 보다 더 깊이가 있고 여운이 남을 프로젝트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선정되지 않은 작품도,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인다면, 앞으로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다원/기타의 이희문컴퍼니의 <이희문 오더 메이드 레파토리 잡(雜)>은 그간 해외시장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잡가(경기민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잡가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현대적인 움직임이 합쳐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전통예술이 가(歌, 노래) 무(舞, 춤) 악(樂, 연주) 희(戲, 놀이)의 총체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희문컴퍼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한 작품 속에 잘 융해시키고 있다.

앞으로 서울아트마켓과 팜스초이스, 더불어, 한국의 공연예술이 발전되기 위해선, 어떤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까? 앞으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같은 시청각적인 면과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학과 철학을 작품 속에 얼마만큼 잘 융해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 3. 추후 진행 일정 안내

가. 단체 및 작품 자료 수합 : 2014년 8월 10일(일) 까지

나. 선정단체 간담회 : 2014년 8월 13일(수)(예정), 예술경영지원센터

※ 진행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4.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 전 화 : 02-708-2288, 2276

- 이 메 일 : [pams@pams.or.kr](mailto:pams@pams.or.kr)

- 홈페이지 : [www.pams.or.kr](http://www.pams.or.kr)

#### ☆ 2014 서울아트마켓 (PAMS 2014)

- 일 시 : 2014년 10월 7일(화) ~ 11일(토), 5일간

- 장 소 : 국립중앙극장

- 포커스 국가 : 중 국

- 서울아트마켓 둘러보기 : [www.pams.or.kr](http://www.pams.or.kr)